



광남일보



수해 입은 함평천지시장 원스톱 지원
중기청·소진공 등 5개 기관 현장 투입

7



모든 세대 골고루 '행복한 나주' 만든다
윤병태 시장 "예방·치료·돌봄 등 맞춤형 관리"

8



목포,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박차
추진상황 보고회...기반시설 정비 등 논의

10



'이적생 합류' KIA 불펜, 부진 딛고 반등한다
김시훈·한재승, 2경기 만에 승리 행하며 기대감

12

조건 제7899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음력 6월 13일)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9대 지방선거

말 뿐인 광주 지방의원 공약 추진현황 깜깜...유권자 소외

시의회·구의회 등 공개 '전무'...검증 사각지대
무책임 정치 온상 지적...관리·공개 시스템 절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지역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현황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됐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5일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 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2022년 제8대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현직 시의원과 기초의원들의 공약 이행 실적을 게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의 의회는 의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간략한 프로필 외에 구체적인 공약 목록이나 이행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가 누락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선거 이후 실제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공개 의무는 없어, 당선 이후 유권자들이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 같은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실제 광주시청 누리집 첫 화면의 '공약·메니페스토'에는 시정 비전과 목표를 비롯해 각 자치구별 핵심공약과제, 시정목표별 핵심공약과제, 공약 이행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공약 이행률은 65.3%를 기록하고 있고, 공약 정상추진율은 95.5%에 달한다.

각 자치구 누리집에도 지자체장의 공약별 이행현황부터 공약실천계획, 각 분야별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율, 예산 집행 현황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분기별 공약 점검결과와 함께 전체 공약 추진율을 게시해 투명한 공약 실천 여부를 시민들이 평가하도록 했다.

이처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분기별 공약 이행률과 추진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정당 차원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공약 실천 여부가 주요 항목으로 반영된다. 일부 정당은 공헌 과정에서 이 평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반면, 지방의원들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정치적·제도적 검증 장치가 전무하다 보니,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라기보다는 당 공천만 받으면 되는 '무책임 정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지방의원 공약 이행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도당이나 의회 차원에서 공약 이행률을 자체 평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초의원들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세운 공약조차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결국 지방자치 전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약 이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말만 아닌 실천으로 책임지는 의정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철거되는 서방천 홍수방어벽 5일 광주 북구 신안동 서방천 일대에서 작업자들이 침수 예방을 위해 투명 홍수방어벽 철거 및 배수 구멍을 뚫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집중호우 피해 도민에 최대 550만원 긴급 지원

도, 1가구당 재난지원금 350만원·의연금 200만원

전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등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 550만원의 긴급 지원된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평균 강수량은 66mm였지만, 무안 망운면은 시간당 141.5mm의 극한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성 호우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7·8·15면

이로 인해 주택 94동과 상가 71동이 침수되고, 농작물 8908ha가 피해를 입는 등 민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는 피해 점수와 동시에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피해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돌입했다.

주거공간이 침수된 가구에는 1가구당 재난지원금 350만원이 지급되며, 별도로 대한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하는 의연금 2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5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주 영업장 침수 피해에는 재난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되며, 전남도 자체 구호기금으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500만원까지 보전된다.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전남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3억원 한도의

재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료율은 0.5%로 일괄 적용된다.

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연계해 연 2% 고정금리로 최장 5년간 1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해서는 납입금 한도 내에서 2000만원 한도로 2년간 무이자 대출이 지원된다.

도는 피해 소상공인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일까지 나흘간 함평 천지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하고,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금융 상담과 대출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진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북구·광산구 어룡동 '특별재난지역' 유력

양부남 의원 질의에 행안부 장관 "대통령께 오늘 건의"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이 이르면 이번 주 중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하지만 광주 북구와 광산동 어룡동은 지난달 중순(17일)에 발생한 피해인데도 1차 선포에서 제외된 데다, 6일

께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건의될 것으로 보여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국적인 폭우 피해에 대해) 지난 2일까지 피해 조

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내일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도 건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 데다, 주무 장관이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유력해졌다. >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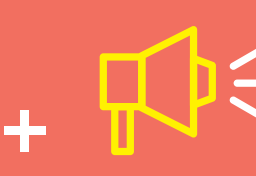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높은 주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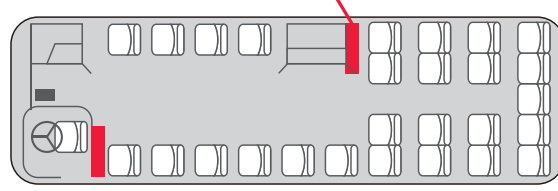


저렴한 광고비

이번정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H | 주 | 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 062) 223-6511